조계종, 제8기 법계위원 위촉

위원장에 원로의원 월탄 스님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40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월탄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現법계위원 월탄 · 종진 · 경일 · 무관 · 동광 스님과 신임위원 원경(원로의원) · 진아(前존자암 주지) · 현고(前송광사 주지) · 정여(前범어사 주지)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호섭 기자

"복지보살, 속환사바 하시길"

제원 스님 49재, 12일 삼천사서 봉행



불교사회복지의 거목 길음당 제원 스님의 49재가 11월 12일 서울 삼천사(회주 성운)에서 봉행됐다. 제원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불교복지와 수행 현장에서 인연을 맺은 많은 이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49재에는 수행도반 모임인 구인회 소속 스님들이 대거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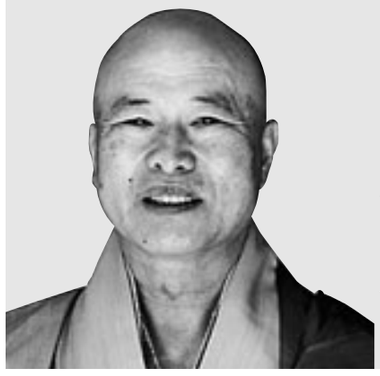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 연탄나누기



(사)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공동대표 인경, 천불사 주지)는 11월 11일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관내 불우이웃 90가정에 연탄 3만 6000장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는 천안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성직자들이 2008년 창립한 순수봉사단체로 매년 사랑의 1채 집짓기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제15회 대원상 포교대상 특별상 성운 스님

장려상 자비명상 · 통일바라밀숲… 콘텐츠 대상 문창용 · 전진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불법 홍포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포상하기 위한 제15회 대원상 포교대상 출가부문 특별상에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이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포교대상 출가 부문 특별상에 성운 스님을, 장려상 수상단체로 (사)자비명상(이사장 마가)을, 재가 부문 장려상에 통일바라밀숲(대표 남지심)을 각각 선정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콘텐츠 대상에는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를 제작한 문창용 감독과 전진 프로듀서를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일러스트레이션 '붓다, 얻다'를 그린 장정윤 작가를 장려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포교 대상 특별상(출가 부문)을 수상한 성운 스님은 1968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했으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부장 · 해인사 승가대학 조교수 · LA삼천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성운 스님은 일찍이 사회복지 포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설립을 시작으로 20년 이상 각계각층 복지포교에 헌신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불교 복지포교에 헌신 공로

"발심의 새 계기 삼을 것"

성운 스님은 "그동안에 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내 자신이 부끄러운 점을 느낀다. 상이란 것은 나에게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거울을 통해 주어진 삶에 마하반야바라밀로 모든 생명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스님이 말한 마하반야바라밀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사회복지 바라밀 실천을 의미한다. 스님은 이어 "크나 큰 채찍으로 그동안의 나태했던 스스로를 바라보며 발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출가 부문 장려상 수상단체인 (사)자비명상은 명상 지도자인 마가 스님이 이끌고 있으며, 불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교육과 명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대에 적합한 수행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가 부문 장려상 수상단체인 통일바라밀숲은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장학금 및 역사기행, 템플스테이 지원을 통해 불자로의 포교 및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고하도록 이끌어주는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문창용 · 전진의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티베트 불교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9살 소년 앙뚜와 스승 우르갼의 아름다운 동행을 보여줘 콘텐츠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장정윤 작가의 일러스트레이션 '붓다, 얻다'는 일상에서 친근하고 재미있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시도한 재치가 돋보여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편, 대원상 시상식은 11월 17일 마포 다보빌딩(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렸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1천만 원, 우수상은 7백만 원, 특별상은 5백만 원, 장려상은 3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준원 금강대 제6대 총장 취임



금강대 신임총장으로 선임된 이준원 제6대 총장이 공식 취임했다.

금강대는 11월 16일 교내 원각도서관 1층 소강당에서 이준원 제6대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과 종의회 의장 도원 스님, 광수사 주지 무원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이 총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강대가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자리매김 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가 왔다"면서 △불교문화 진흥 △소수정예 강소대학 육성 지속 △대학역량 강화 △위상 재정립 △대학 안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춘광 스님은 치사에서 "이 총장은 풍부한 경력과 넓은 인품, 남다른 안목과 열정이 있어 구성원 모두 힘을 보태면 괄목한 성장이 보장될 것"이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생활불교조계종 15주년 법회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도선)은 11월 11일 총본산인 영양 관법사에서 '창종 15주년 기념대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암도 스님을 비롯해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종단임원 등 10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도선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창종 15년을 맞아 생활불교 실천의 목표를 더욱 드높이고 화합과 소통으로 더욱 발전하는 종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암도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것이 자기가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며, 이는 생활이 곧 수행 정진임을 아는 것"이라고 바른 수행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발전에 공헌한 임원 및 신도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음악, 佛法 소리 표현 예술"

조계종 교육원, 기본교육기관 불교음악 특강



"불교음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로 표현하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불보살을 찬탄 공양하는 음악'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를 소리로 표현하는 음악'이 불교음악입니다."

불교음악의 역사와 전래, 현재 현황을 짚어보고 전문 합주단의 실연을 감상하는 특강이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1월 13일 봉녕사 경내 문화원 금라에서 승가대학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특강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음악여행'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이 주관한 것으로 앞서 지난 10월부터 송광사, 통도사, 법주사 등을 순회하며 강의가 진행돼 왔다. 봉녕사에서의 이번 특강은 5번째 이뤄진 것이다.

특강은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이 '불교음악의 역사와 실체'를 주제로 한 이론 강연과 봉은국악합주단의 불교음악 실연과 해설이 이뤄졌다. 이날 박 원장은 특강을 통해 불전에 기록된 불교음악부터 △불교의 음악관 △불전상의 악기와 음악 용어 △불교음악 전래사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일상 의례인 염불도 불교음악"이라고 강조한 박범훈 원장은 신심 나는 염불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 특유의 독특한 민요 가락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11월 13일 봉녕사 승가대학서
불교음악원 주관한 5번째 특강
봉녕사 학인 스님 100명 참석
강의부터 음악 실연 · 해설 진행
"불교음악 대한 이해 높아졌어요"

박범훈 원장에 따르면 예전에는 황해도 지역 스님들은 산염불조로, 경기 지방 스님들은 경기민요조로, 전라 지방 스님들은 육자백이(남도 계면조)조로 염불 가락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강원도 산간지방의 민요조인 '메나리'조 가락으로 통일됐다.

이에 대해 박범훈 원장은 "앞으로는 각 지방의 다양한 민요조의 염불이 다시 불러지길 기대한다"면서 "그래야 불교음악이 다양하고 풍부해지며 예술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론 강의 이후 진행된 실연과 음악 해설 시간에서는 봉은국악합주단의 연주로 강원도아리랑 · 보렴 · 성주풀이 · 회심곡 · 비나리 각 지방별 민요 가락을 소개했으며, 근대 이후 만들어진 창작 찬불가들에 대해서도 해설했다.

이날 강연에 참가한 봉녕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은 불교음악과 염불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3학년 혜승 스님은 "불교음악은 사실 생소했는데 역사와 전래를 되짚어 새롭게 다가왔다. 염불의 의미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며 "일반 불자들과 시민들도 쉽게 불교음악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강좌들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교육원과 불교음악원은 11월 20일 3차례 더 진행된 특강을 통해 학인들의 염불과 불교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아지길 기대했다.

수원 봉녕사=신성민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